

자영업의 지속기간과 지속의사의 영향요인에 관한 연구

A Study on Factors for Sustaining Period and Willingness of Continuing of Self-employed Business

계명대학교 소비자정보학과
교 수 홍 성 희*
교 수 유 가 효
여성학대학원
부 교 수 감 세 영

Dept. of Consumer Information Science, Keimyung University

Professor : Hong, Sung-Hee

Professor : Yoo, Ka-Hyo

Dept. of Women's Studies, Keimyung University

Associate Professor : Kang, Seyoung

〈 목 차 〉

- | | |
|----------------|---------------|
| I. 서론 | IV. 연구결과 및 분석 |
| II. 이론적 배경 | V. 결론 및 제언 |
| III. 연구방법 참고문헌 | 참고문헌 |

〈Abstract〉

The purpose of this study was to analyze the effect of the influencing factors on the continuity and the willingness of continuing self-employment. The sample of 321 was selected from self-employed workers living in Daegu. For data analysis, t-test, multiple regression, and logistic analysis were used. The major findings were as follows :

1. The sustaining period of self-employment were affected by gender, age, and educational attainment of self-employed workers, as well as the amount of starting capital, couple's partnership in business or not, and the type of industry in business.

2. Willingness to continue self-employment is more likely for those who without other income source, have positive vision with future economic prospects, have more

* 주저자, 교신저자: 홍성희(hsh@kmu.ac.kr)

satisfied with their self-employed work.

Key Words : 자영업 지속기간(sustaining period of self-employment), 자영업 지속 의사(willingness to continue self-employment), 자영업 세력화정도 (empowerment with self-employed work), 자영업만족도(satisfaction with self-employed work)

I. 서 론

우리나라는 취업자 중 자영업주 및 무급가족 종사자 등 비임금근로자의 비중이 40%에 가까운 특징을 보인다. 이러한 비임금근로자의 비중은 OECD 국가들이나 대만, 홍콩 등 경쟁상대국에 비해 상당히 높은 상황이다(금재호 등, 2003). 특히 1990년대 중반 이후 정보통신의 발전, 기업조직의 유연화, 산업구조의 변화 등으로 자영업 종사자가 증가하였으며, 1997년 외환 위기 과정에서는 고용이 감소하는 가운데 자영업 부분에서의 신규고용의 창출은 실업률을 낮추는 완충기능을 해왔다. 그러나 자영업의 양적 성장에도 불구하고 자영업자가 집중되어 있는 음식·숙박업, 도소매업 등의 서비스 부문에서는 대형화와 경쟁 심화로 인해 소규모 자영업자들은 경쟁력을 상실해 가고 있으며, 그 결과 상당수의 자영업자들은 소득으로 생계를 유지하기 어려운 상태에 처하거나 임시·일용직 근로자로 전환되어 노동시장의 변두리에 머물게 될 가능성이 높다(금재호, 2002).

자영업이 노동시장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상당히 큼에도 불구하고 우리나라에서 자영업에 대한 연구는 상당히 제한된 범위에서 진행되어 왔다. 1990년대 중반 이후 자영업자의 증가와 외환위기 이후 고용불안의 심화에 따라 임금근로자의 상당수가 창업을 선택한 현상을 반영하듯 대부분의 연구는 임금근로자의 대안으로서 자영업을 선택하게 되는 결정요인을 찾거나 자영업을 선택한 집단의 특성을 밝히는데 (금재호·조준모,

2000; 금재호 등, 20003; 김우영, 2000; 류재우·최호영, 1999) 초점을 맞추고 있다.

우리나라의 자영업집단은 고숙련, 고능력의 기업가형 자영업자 및 전문직 자영업종사자와 저숙련, 저능력의 생계형 자영업자가 혼재되어 집단의 이질성이 매우 큰 것으로 알려져 있다(류재우·최호영, 1999). 이러한 현상은 기술혁신과 지식기반산업의 확대와 같은 사회경제적 변화로 기술력을 갖춘 벤처기업을 창업한 고소득 자영업자가 부상하는 동시에 고용기회의 부족 및 연령 및 성별 등에 기인한 차별로 인해 노동시장에서 비자발적으로 자영업을 선택한 비전문직 영세자영업자의 자영업 선택 및 지속동기의 차이로부터 발생되었다. 이러한 차이는 자영업의 성과에도 영향을 미쳐 자영업으로 인한 소득의 개인 간 격차가 임금근로자 부문보다 더욱 심각하며 ‘소득’이나 ‘일의 안정성’에 대한 만족도도 임금근로자보다 낮은 것을(금재우 등, 2003) 볼 때 자영업집단 내에서의 안정성과 성장에 큰 격차가 있는 것으로 보인다. 이와 같이 자영업 종사자들은 매우 다양한 집단으로서, 자영업에 대한 연구도 대상에 따라 단계적으로 초점을 맞추어야 할 필요가 있다.

자영업에 대한 연구에서는 자영업의 선택, 성장, 퇴장의 세 과정을 고려할 수 있으며, 그 중 자영업의 성장과정은 사업체의 규모, 매출액, 순이익 등 경제적인 성과(성지미·안주엽, 2003)와 함께 자영업의 지속기간(문유경 등, 2002; 금재호 등, 2003)을 통해 세부적으로 파악할 수 있다. 또한 자영업의 지속기간은 곧바로 자영업의

퇴장과정에 대한 연구와 연결된다. 즉, 자영업에 문제가 있을 때 지속 또는 중단여부를 결정해야 하는 선택과정이 뒤따르게 되며, 중단을 선택할 경우 지속기간이 더 이상 연장되지 않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자영업의 지속기간과 지속의사를 살펴보는 것은 자영업의 성장단계를 분석하고 이해하기 위한 방안이라고 볼 수 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자영업자들이 자영업에 진입한 이후 사업을 성장시키는 과정에 초점을 맞추어 자영업의 성장성을 지속기간의 측면에서 분석하고자 한다. 또한 자영업의 성장성 문제가 있거나 지속이 더 이상 어려운 경우 자영업을 중단하고자 하는 선택을 하게 될 것이므로, 자영업의 지속여부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분석한다.

이러한 자영업의 지속여부에 관한 연구를 통해 자영업을 지속하고자 하는 자영업자와 중단하고자 하는 자영업자의 실태를 비교함으로써 자영업자의 특성과 자영업의 현상을 밝힐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자영업 지속기간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추출함으로써 개인과 가족이 인적자본특성과 경제적 자원에 따라 자영업을 선택하고 지속시키는 의사결정을 하는데 지침이 되는 자료를 제공할 수 있다. 한편 정부 및 지방자치단체의 소규모 자영업의 창업지원정책이 실효성을 거두기 위해 필요한 창업 이후 수익을 창출하고 사업체를 유지해나가는 과정을 지원하는 정책방안을 모색하는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II. 이론적 배경

1. 자영업의 지속성

자영업 부문은 고용, 실업의 흡수, 노동력의 유동 등과 관련하여 우리나라의 노동시장에서 매우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다. 그러나

자영업자 중 대부분은 소규모사업을 경영함에 따라 사업성장율에 있어 편차가 크고 또 사업상 실패의 확률이 상당히 높아(류재우·최호영, 1999) 기업으로서의 지속성이 짧다(김지희, 1998).

자영업의 지속이 갖는 의미는 세 가지로 볼 수 있는데 첫째, 자영업으로 인한 경제적 성과 또는 자영업의 성장과정이 일정한 만족을 가져오고 있다고 해석할 수 있다. 예를 들어 자영업이 임금근로에 비해 더 많은 생애소득을 가져온다고 기대되어 개개인이 임금근로와 자영업 중 자신에게 더 유리한 자영업을 자발적으로 선택하여 지속하는 경우와 전문직 자영업종사자 및 기업가형 자영업자가 상대적으로 고소득을 창출함으로써 자영업을 지속하는 경우이다. 둘째, 자영업의 지속이 다른 대안, 예를 들면 임금근로나 미취업상태와 자영업 사이의 동태적 선택의 결과임을 고려할 때 자영업의 지속이 개인에게 직업의 자율성이나 직업만족도, 근무시간의 탄력성 등의 비금전적인 보상 면에서 더 큰 만족도 또는 높은 효용 수준을 주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이같은 관점은 Evans et al.(1989)이 자율성을 선호하는 사람일수록 자영업자가 되는 경우가 많다고 한 것이나 Lombard(2001)가 근무시간의 탄력성을 원하는 여성의 경우 자영업을 선택할 가능성이 높다는 것을 실증적으로 입증한 연구 결과를 통해서도 파악할 수 있다. 셋째 다른 취업대안이 없기 때문에 불가피하게 자영업을 지속하는 것으로도 해석 가능하다. 예를 들어 자영업이 기혼여성들에게 이전의 취업경험, 자본, 기술 없이 취업할 수 있는 대안적 역할을 하거나, 임금노동시장에서 비교우위를 점할 수 없는 저숙련 근로자나 고령자가 비자발적으로 자영업을 선택하거나 지속하는 경우이다. 즉 이 경우 자영업을 지속한다는 것은 현재 운영하는 자영업 이외에 더 나은

대안이 존재하지 않는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 같은 경향은 kim 등(2002)의 연구에서 현재의 자영업자를 지속하고자 하는 자영업자들은 재정적으로 취약한 소규모 자영업자들로서 1997년 경제 위기 이후 임금근로자를 구하는 것이 어렵기 때문에 불가피하게 자영업을 지속하고 있는 경향이 있는 것으로 본 결과에서도 뒷받침된다.

자영업의 지속기간은 자영업자들의 실태를 파악하기 위한 중요한 변수이다. 일반적으로 자영업의 지속기간이 길어질 경우 노동의 질이 향상되고 자금이 안정되는 등 긍정적 영향을 미친다고 보고 있다. 류재우·최호영(2000)의 연구에 의하면 우리나라 남성 자영업주는 상당 기간 자영업을 지속하여 생존기간은 대략 3-4년인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또한 자영업을 시작한 뒤 5개월 이후까지도 계속적으로 자영업에 잔류하고 있을 확률은 1992년 이후의 경우 92-98%에 이르며, 1997년의 경제위기 전까지는 자영업자의 지속기간이 길어져 노동의 질과 고용안정성이 높아졌던 것으로 평가하고 있다.

사업의 지속성은 자영업자의 목표로 볼 수 있다. 이 목표에 도달하기 위해 자영업자의 인적자본과 경제적 자원이 활용된다. 대표적인 인적 자본으로는 자영업자가 자영업에 진입하는 연령이나 교육수준이 있으며, 창업자본금, 배우자의 취업유무, 가족소득 등이 경제적 자원으로 거론된다. Bates(1990)는 자영업주의 학력수준이 높고, 창업자본금의 규모가 클 경우 장기간 생존할 가능성이 높다고 제시하였고, 금재우 등(2003)의 분석에서도 초기자본금이 많을수록, 자영업을 시작한 연령이 낮을수록 사업기간이 길어지는 것으로 추정됨으로써 자영업자의 인적, 경제적 자원이 자영업의 지속성과 밀접한 관련이 있다는 것이 입증되었다.

자영업의 지속에 관한 연구에서는 성별에 따른 차이가 두드러지는 것으로 나타난다. 일반적으로 개인의 노동 지속여부의 결정에는 인적 자본이 미치는 영향이 크다. 즉, 개인의 교육, 기술 등의 인적 자본에 따른 임금수준 및 근로조건 등에 의해 경제활동이 좌우되기 쉽기 때문이다(Becker, 1975). 그러나 여성의 노동에는 이와는 달리 결혼, 출산, 자녀양육과 같은 여성적 책임이 주요한 영향요인으로 나타난다(Mincer, 1969; Heckman, 1974). 특히 자녀의 출산과 어린 자녀의 존재는 경제활동을 하고 있는 여성에게 여성적 책임으로 부과되어 직업에 대한 소명감을 낮추며, 역할갈등을 야기하므로 직업적 변화나 노동시장에서의 퇴출과 같은 노동이동을 고려하게 하는 요인으로 작용하게 된다(Bielby, 1992). 한편 여성의 직업적 성취동기가 증가하고 있기는 하지만, 여성의 경제활동은 실질적으로 경제적 동기에 의해 비롯되는 경우가 많으며 이차적인 성격을 갖게 된다. 다시 말하면 여성의 경제활동은 자신의 능력보다는 여성적 책임과 경제적 상태에 의해 경제활동참가 자체가 좌우되며 경제활동에 참가한 후에도 노동이동을 할 가능성이 높은 유동적, 탄력적 성격을 갖고 있는 것이다.

그러나 자영업은 임금근로에 비해 근로시간의 유연성이 높아 여성의 가사노동과 취업유지를 병행할 수 있게 해주는 하나의 대안이 될 수 있다. 특히 재택이나 가족기업의 형태로 운영되는 자영업의 경우 가사노동을 양립시킬 수 있다는 이점을 갖는데, Ahrentzen(1990)은 재택가족기업을 자녀양육 및 가사노동과 직업을 양립시킬 수 있는 취업형태로 보았다. 이와 같이 자영업의 시공간적 유동성은 여성으로 하여금 취업과 가사노동을 병행할 수 있도록 하는 유인요인이 되기도 하나, 여성의 경제활동은 가사노동 및 자녀양육의 책임으로

인해 제한을 받을 수 있으므로 여성의 자영업 지속은 남성의 경우와 다른 양상을 보일 것으로 예측된다.

2. 자영업의 지속성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자영업의 지속성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지속기간과 지속여부의 두 가지 측면에서 보면, 우선 자영업의 지속기간에 영향을 주는 요인들로는 자영업자의 연령, 교육수준, 결혼상태 등의 개인적 특성, 가구주 여부, 6세 미만 자녀 유무, 가계총소득 등의 가족특성, 특정산업의 성장과 소멸, 경기변동, 실업률 등과 같은 사회구조적 특성 등과 함께 창업자본금, 부모의 자영업 경험여부, 자영업자의 이전 취업경험 등이 자주 거론되고 있다.

금재호 등(2003)은 한국노동패널조사의 자료를 이용하여 자영업의 지속성을 파악하기 위해 사업기간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분석한 결과 초기자본금이 많을수록 사업기간이 장기간으로 추정되나, 총자본금 중 자기자본의 비중은 사업기간과 상관관계를 보이지 않았다. 또한 자영업을 시작한 연령이 낮을수록 장기간 동일사업을 할 확률이 높게 추정되었다. 학력에 따라서는 학력이 높을수록 사업기간이 짧았는데 최근 들어 고학력자의 자영업 진출이 확대되었기 때문인 것으로 보였다. 산업별로는 광공업은 기준으로 음식숙박업의 사업기간이 크게 짧은 것으로 나타났는데, 이는 음식숙박업에서 진입과 이탈이 매우 빈번하게 이루어지고 있음을 시사한다.

문유경 등(2002)은 경제활동인구조사 자료를 이용하여 자영업 지속기간을 분석하였는데, 자영업자의 성별과 연령, 혼인상태에 따라 차이를 보였으며 교육수준별로는 두드러진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 성별에 따라서는 남성 자영업자의 지속기간이 여성보다 다소 길어 여성 자

영업의 경우 영세성으로 인해 지속기간이 상대적으로 짧은 것으로 보였다. 혼인상태에 따라 미혼의 경우 지속기간이 8개월에 불과한 반면, 기혼인 경우 18개월을 초과하는 차이를 보였다. 연령에 따라서는 40대와 50대의 경우 20개월이나 15-29세의 경우 8개월에 불과하였다. 전반적인 결과를 통해 청년층이나 미혼의 경우 자영업이 임금근로로 진입하는 과정에서 일시적인 대안으로 활용되고 있으며, 60대 이상에서는 정년퇴직이나 임금근로직의 채용에서 상대적으로 자영업에 비교우위가 있어 노동시장에서 바로 퇴장하기 보다는 자영업을 가교로 활용하고 있는 것으로 보였다.

Bates(1990)는 자영업주의 학력수준이 높고, 창업 당시의 자본규모가 클 경우 자영업이 장기간 생존할 가능성이 높다는 것을 실증적으로 입증하였다.

한편 자영업의 지속여부에 관한 연구로서 금재호 등(2003)은 1998년부터 2001년까지 한국노동패널조사 자료를 사용하여 자영업자가 자영업을 그만둘 가능성에 미치는 영향력을 분석한 결과 남성일 경우 중단할 확률이 높았으며, 가구의 월평균소득과 자영업자의 자영업소득이 많을수록 이탈확률이 낮았다. 또한 총자산의 증가가 자영업의 이탈을 방지하는 효과가 있는 것으로 추정되었다. 자영업의 업종에 따라 이직 가능성이 크게 달라지는 것으로 나타났는데, 제조업을 기준으로 할 때 전기·가스 및 운수·창고·통신업을 제외한 모든 서비스업에서 자영업 이탈 가능성이 높게 추정되었다. 그 중에서도 음식·숙박업의 경우 이탈 가능성이 가장 높게 나타나 사업의 부침이 상대적으로 극심하다는 점을 보여준다. 이와 같은 결과는 자영업의 지속 여부가 자영업자의 인구학적 변수보다는 가구 및 개인의 경제상황에 의해 영향을 받을 가능성이 높다는 것을 의미한다.

Kim et al.(2002)은 자원과 제약요인, 기업 특성이 자영업 중단의사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한 결과, 연령과 교육수준 등의 인적자본은 유의한 영향을 미치지 않은 반면 배우자의 취업유무나 연가계지출 등 경제적 자원은 자영업 중단의사에 영향을 미치는 역할을 하였다. 제약요인 중 6세 미만 자녀의 존재는 부적 영향을 미쳐, 6세 미만의 자녀를 둔 가구에서 중단의사가 높았다. 또한 자영업의 장래성 만족도가 높고, 일 자체에 대한 만족도가 높을수록 자영업 중단의사가 낮았다. 기업특성 중에서는 성별과 산업유형이 영향을 미쳤는데, 남성의 중단의사가 여성에 비해 낮았고, 건설업에 비해 기타산업 종사자의 경우 중단의사가 낮았다.

여성의 자영업 지속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한 문유경 등(2002)의 연구에서는 개인의 특성보다는 가족특성이 큰 영향을 미치고 있음이 밝혀졌다. 즉, 미혼여성이 기혼여성보다, 자영업을 그만 두기 이전 해에 출산을 한 여성은 출산경험이 없는 여성보다 그만 둘 위험률이 높게 나타나고 있다. 또한 기혼여성 중에는 배우자가 있는 여성이 없는 여성보다 그만 둘 위험률이 높게 나타난다. 연령별로는 50대 이상이 30대보다 자영업을 그만 둘 위험률이 낮게 나타나, 고연령집단의 경우 자영업에 안정적으로 정착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인 것으로 보았다. 또 산업 중 숙박 및 음식업, 사회 및 개인서비스업이 제조업에 비해 자영업을 지속하게 하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김우영(2001)의 남녀 자영업자의 비교분석에서도 여성의 자영업 결정이 남성과 가장 큰 차이를 보이는 부분은 혼인형태였다. 즉, 여성의 경우 남성과 비교할 때 상대적으로 이혼자나 사별자가 기혼자보다 자영업부문에서 이직할 확률이 낮게 나타났다. 이는 여성이 이혼 혹은 사별하였을 경우 자영업이 생계유지를 위한 현실적

대안이 될 수 있는 한편 여성가장이 가사노동과 병행하기 위해서는 비교적 근무시간이 자유로우며 일의 개인적 통제가 가능한 자영업이 중요한 취업수단이 되는 것으로 보았다.

이상의 선행연구에서 사용된 변수들의 유형에 다소 차이가 있으나 자영업 지속기간의 영향요인으로는 자영업자의 성별, 연령, 교육수준 등의 개인적 특성과 창업자본금, 산업 등 자영업과 관련된 특성이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자영업 지속의사의 영향요인으로는 자영업자의 개인적 특성인 성별과 경제적 특성으로서 가구소득 및 가계지출, 총자산, 배우자의 취업, 자영업소득, 산업, 자영업에 대한 만족도 등 자영업 특성이 다양하게 영향을 미쳤으며, 특히 여성 자영업자의 경우 결혼상태나 출산여부 등의 가족특성이 중요한 영향요인으로 나타나고 있다.

III. 연구방법

1. 연구문제

본 연구는 자영업의 지속기간 및 지속의사의 영향요인을 분석함으로써 자영업 지속성의 경향을 파악하고 자영업을 지속하는 자영업자의 특성을 밝혀내는 것을 목적으로 다음과 같은 연구문제를 설정하였다.

연구문제 1 : 자영업의 지속기간 및 지속의사의 실태는 어떠한가?

연구문제 2 : 자영업의 지속기간에 독립적인 영향을 미치는 변인들은 무엇인가?

연구문제 3 : 자영업의 지속의사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은 무엇인가?

2. 측정도구의 구성

본 연구에서 사용된 자영업의 지속기간 및

자영업의 지속기간과 지속의사의 영향요인에 관한 연구

<표 1> 변수의 정의 및 측정방법

변수	정의 및 측정방법
종속변수 자영업 지속기간 자영업 지속의사	현 자영업을 지속해온 기간(월) 현 자영업을 앞으로도 지속할 의사 1=지속 0=중단
독립변수 개인적 특성 성별 연령 교육수준	1=남 0=여 만 연령(세) 교육년수(년)
이전 취업경험	현 자영업 이전에 취업했던 경험 1=유 0=무
가족 특성 결혼상태 가족수 부 자영업경험 모 자영업경험	1=기혼 0=이혼, 별거, 사별 현재 동거중인 가족수 부의 자영업경험 유무 1=유 0=무 모의 자영업경험 유무 1=유 0=무
자영업 특성 및 경제적 특성 창업자본금 월평균순수입 다소득유무 부부동업유무 산업 주관적 경제수준 내년경제전망 세력화정도 제약정도 자영업만족도	현 자영업 창업당시의 자본금총액(만원) 현 자영업 월평균 순수입(만원) 가족원 중 소득원의 유무 1=유 0=무 현 자영업의 부부동업 여부 1=동업 0=비동업 현 자영업의 해당산업 1=도소매, 숙박음식업 0=기타 본인이 인식하는 가계의 경제수준 1=하 5=상 내년의 전반적 가계경제상황에 대한 전망 1=매우 나빠질 것이다 5=매우 좋아질 것이다 현 자영업에서 자신이 원하는 것을 얻을 수 있고, 타인에 게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능력으로 업무수행과 관련된 환 경적 요인 통제정도, 타인과의 상호관계정도 및 자기효 능 감으로 구성됨 1=전혀 그렇지 않다 5=매우 그렇다 현 자영업 운영 시 어려움과 제약의 인지 정도 1=전혀 어렵지 않다 5=매우 어렵다 현 자영업의 수입, 근무시간, 근무내용, 근무환경, 발전가능성에 대한 만족도 1=매우 불만족 5=매우 만족

지속의사와 관련된 변수들의 정의 및 측정방법은 <표 1>과 같다.

3. 자료수집 및 분석방법

본 연구는 대구광역시에서 소규모자영업을 경영하는 여성과 남성을 대상으로 하였다. 본 연구의 자료는 구조화된 설문지를 사용한 면접조사 방식으로 수집하였으며, 설문지 조사는 2004년 2월 중순부터 4월까지 중소기업청 산하 대구 북부 소상공인지원센터의 협조를 얻어 조사기간 동안 소상공인지원센터에 상담을 의뢰한 기혼여성 및 남성 자영업자를 대상으로 300부를 실시하였고, 연구자 및 연구보조원이 140명을 임의표집 방식으로 조사하였다. 조사 과정에서는 업체의 법률상 대표가 가족 중 누구이든 상관없이 실질적인 경영주인 여성 혹은 남성을 조사하였으며, 의도적으로 성별과 연령별로 비슷한 비율로 대상자를 선정하였다. 완성된 설문지 440부 중 응답상태가 부실한 경우와 종업원 수와 동업자수 그리고 월평균 매출액과 수입 등 사업규모에서 다른 응답자들에 비해 지나치게 격차가 큰 극단치를 가진 설문지를 제외하였다. 또한 자영업의 지속성을 분석하기 위한 연구목적에 고려하여 창업한지 최소 3개월이 지난 자영업자로 범위를 좁힘에 따라 최종적으로 분석대상을 321명으로 확정하였다.

분석을 위해서는 PC SPSS program(ver. 10.0)을 이용하여 조사대상자의 일반적 특성과 자영업 지속성의 실태를 빈도와 백분율, t-test 및 χ^2 검증을 통해 파악하였다. 자영업 지속기간의 영향요인은 중회귀분석을 통해 분석하였고, 지속의사는 이항변수이므로 이에 대한 변수의 영향력을 분석하기 위해서는 logistic 분석을 실시하였다.

IV. 연구결과 및 분석

1. 조사대상자의 일반적 특성

조사대상자의 일반적 특성은 <표 2>와 같다. 전체 대상자의 평균연령은 43세이며 40대가 40.8%로 가장 높은 비율을 차지하였다. 교육년수는 약 13년 정도이며, 고졸자가 37.4%, 대졸자가 35.5%로 대졸이상의 고학력자의 분포가 비교적 높았다. 현재 자영업을 하기 이전에 임금노동이나 다른 자영업에 종사했던 경험이 있는 경우가 78.8%로, 없는 경우에 비해 훨씬 많았으며, 부나 모가 자영업에 종사했던 경우가 각각 35.8%, 15.9%였다. 현재 자영업을 부부가 같이 운영하는 가족기업의 형태가 28.7% 였으며, 산업분류상으로는 도소매 및 숙박음식업 종사자가 65.1%로 나타남으로써 우리나라 경제활동인구조사의 자료에서도 도소매 및 음식숙박업에 가장 많은 자영업주가 집중되어 있는(통계청, 경제활동인구조사, 각년도를 금재호 등(2003)에서 재인용) 경향을 반영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창업 당시 자본금은 약 7284만원이며, 자영업으로 인한 월평균 순수입은 약 300만원이었다. 이들이 주관적으로 인지하는 가계의 경제적 수준은 2.60으로 중간수준인 3점에 미치지 못하는 수준이었으며, 내년의 가계경제에 대한 전망은 3.20으로 중간을 약간 상회하는 정도였다. 자영업을 운영하면서 느끼는 세력화 정도는 3.89로 비교적 높은 수준이었으며 어려움과 제약정도는 2.97로 중간 수준보다 약간 낮았다.

이러한 결과를 통해 자영업 운영에 대한 자율성과 융통성이 어느 정도 확보되었다고 볼 수 있다. 그러나 자영업만족도는 2.95로 중간 수준에 못 미치는 것으로 나타나 전반적인 만족수준은 높지 않은 것으로 볼 수 있다.

〈표 2〉 조사대상자의 일반적 특성 (N=321)

범주형 변수	빈도	백분율(%)
개인적 특성		
성별 남	153	47.7
여	168	52.3
연령 30대 이하	118	36.8
40대	131	40.8
50대 이상	72	22.4
교육수준 고졸미만	36	11.2
고졸	120	37.4
전문대졸	51	15.9
대졸이상	114	35.5
이전 취업경험 유	253	78.8
무	68	21.2
가족 특성		
결혼상태 기혼	294	91.6
이혼, 별거, 사별	27	8.4
부 자영업경험 유	115	35.8
무	206	64.2
모 자영업경험 유	51	15.9
무	270	84.1
자영업 특성 및 경제적 특성		
타소득유무 유	165	51.4
무	156	48.6
부부동업유무 동업	92	28.7
비동업	229	71.3
산업 도소매, 숙박음식업	209	65.1
기타	111	34.6
자영업 지속기간 1년 이하		
2 - 3년	65	20.3
4 - 5년	90	28.1
6 - 9년	69	21.6
10년이상	48	15.0
자영업 지속의사 지속	48	15.0
중단	228	71.0
	93	29.0
연속형 변수		
	평균	표준편차
개인적 특성		
연령	43.31	8.10
교육수준(년)	13.55	2.47
가족 특성		
가족수	2.62	.97
자영업 특성 및 경제적 특성		
창업자본금(만원)	7284.49	12613.11
월평균순수입(만원)	299.81	233.48
주관적 경제수준	2.60	.78
내년경제전망	3.20	.85
세력화정도	3.89	.53
제약정도	2.97	.55
자영업만족도	2.95	.61
자영업 지속기간(월)	56.98	56.03

2. 자영업의 지속기간 및 지속의사의 실태

자영업의 지속성을 알아보기 위해 지속기간 및 지속의사, 중단이유의 빈도 및 백분율을 산출하고, 지속의사를 가진 자영업자와 그렇지 않은 자영업자의 특성을 t-test 및 χ^2 검증을 통해 비교하였다. 현재 자영업의 지속기간은 평균 약 57개월이었으며, 1년 이하가 20.3%, 2-3년인 경우가 28.1%로서 10년 이상인 경우가 14.1%인 것에 비하면 3년 이하인 경우가 약 48%에 달해 자영업에 진입하여 적응과정에 있거나 안정기에 도달한 경우가 과반수를 차지한다고 볼 수 있다. 한편 현 자영업을 지속하고자 하는 자영업자는 71%이며, 중단하고자 하는 의사가 있는 경우도 29%에 달했다(표 2 참고). 중단하고자 하는 경우 중단이유로는 '수입이 적다'는 이유가 11.2%로 가장 많고, 그 다음으로 '쉬고 싶다'는 이유가 4.7%, '업종 전환'이 4.0%의 순이었다. 따라서 수입이 적거나 업종을 전환하고자 하는 운영상의 문제점으로 인한 중단이 주를 이루며, 쉬고 싶거나 건강상의 문제, 적성이나 고령 등 개인적인 문제점으로 인한 중단의사는 많

지 않은 것으로 볼 수 있다(표 3 참고).

한편 자영업을 지속하고자 하는 자영업자의 특성을 파악하기 위해 지속여부를 중심으로 집단 간 비교를 실시한 결과는 <표 4>와 같다. 현 자영업을 지속하고자 하는 자영업자는 중단하고자 하는 자영업자에 비해 교육수준이 다소 높으며, 가족수가 적고, 여성보다 남성인 경우가 더 많았으며, 가족원 중 다른 소득원이 없는 경우가 더 많았다. 또한 지속하고자 하는 자영업자의 경우 월평균 자영업 순수입은 약 326만원으로 중단하고자 하는 자영업자의 234만원에 비해 월등히 많았으며, 가계경제수준을 더 높게 인지하였고, 내년 경제전망도 더 긍정적으로 전망하였다. 한편 지속의사가 있는 자영업자는 중단의사가 있는 자영업자에 비해 세력화정도 및 만족도의 수준이 더 높았으며, 제약정도는 더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를 통해 자영업을 지속하고자 하는 자영업자는 남성이며, 교육수준이 다소 높고, 타소득원이 없는 경우이며, 자영업수입을 비롯하여 가계경제에 대한 인식수준이 보다 높아 경제적으로 비교적 안정된 자영업자

<표 3> 자영업 중단이유 (N=321)

중단이유	빈도	백분율
적성맞지않아	6	1.9
쉬고싶어	15	4.7
자녀양육	6	1.9
가사전념	2	.6
건강상	8	2.5
나이들어	5	1.6
수입적어	36	11.2
업종전환을위해	13	4.0
기타	3	.9
합계	94	29.3

〈표 4〉 자영업 지속의사에 따른 자영업자의 특성 (N=321)

자영업자특성 지속의사	지속(228)		중단(93)		t value
	평균	표준편차	평균	표준편차	
연령	42.80	8.14	44.54	7.91	1.75
교육수준	13.82	2.35	12.89	2.61	-3.08**
가족수	2.54	.97	2.82	.95	2.34*
월평균순수입	326.73	232.87	234.41	222.91	-3.26**
총자산	23.55	27.71	19.51	15.90	-1.29
주관적 경제수준	2.70	.73	2.35	.87	-3.66***
내년경제전망	3.35	.80	2.84	.88	-5.08***
세력화정도	4.01	.47	3.62	.55	-6.38***
제약정도	2.92	.55	3.08	.54	2.27*
자영업만족도	3.09	.54	2.59	.62	-6.97***
사업기간	54.78	55.14	62.43	58.12	1.08
자영업자특성 지속의사	지속(228)		중단(93)		x2
	빈도	백분율	빈도	백분율	
성별 여	109	0.48	59	0.63	6.47*
	남	119	0.52	34	
이전취업경험 무	45	0.20	23	0.25	.98
	유	183	0.80	70	
결혼상태 기혼	209	0.92	85	0.91	.006
	이혼, 별거	19	0.08	8	
부의 자영업 경험 유	150	0.66	37	0.40	.370
	무	78	0.34	56	
모의 자영업 경험 유	36	0.16	15	0.16	.006
	무	192	0.84	78	
타소득 유무 유	105	0.46	60	0.65	9.015**
	무	123	0.54	33	
부부동업 유무 유	64	0.28	28	0.30	.134
	무	164	0.72	65	
사업 도소매, 숙박음식업	82	0.36	29	0.32	.571
	기타	146	0.64	63	

* p <.05 ** p <.01 *** p <.001

로 볼 수 있다. 또한 자영업에 대한 세력화와 만족수준이 보다 높고, 제약정도는 낮아 비금

전적 측면에서도 보상심리를 높게 인지하는 자영업자라고 볼 수 있다.

3. 자영업 지속기간의 영향요인

자영업자의 개인적 특성, 가족특성, 자영업 특성 및 경제적 특성이 자영업의 지속기간에 미치는 상대적인 영향력을 분석한 결과 <표 5>와 같다. 자영업 지속기간에 영향을 미치는 변인으로 자영업자의 개인적 특성인 성별과 연령, 교육수준, 이전 취업경험이 모두 영향을 미쳤으며, 자영업 특성 및 경제적 특성 중 창

업자본금과 부부동업여부, 산업이 영향을 미쳤다. 한편 가족특성은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 확인되었으며, 이들 변수의 설명력은 20.6%였다.

성별에 따라 남성자영업자가 여성자영업자에 비해 지속기간이 길었는데, 김우영(2001)이 남녀간 자영업 격차를 분석한 연구에서도 남성이 여성에 비해 자영업주가 되는 사람이 상대적으로 많을 뿐 아니라 자영업에서 이직하

<표 5> 자영업 지속기간의 영향요인 (N=321)

독립변수		종속변수	자영업 지속기간	
			B	β
개인적 특성	성별(여)		15.364	.137*
	연령		2.148	.310***
	교육수준		-3.661	-.120*
	이전 취업경험(없음)		-15.664	-.114*
가족 특성	결혼상태(사별,이혼)		-7.757	-.036
	가족수			
	부 자영업경험(무)		3.417	.029
	모 자영업경험(무)		5.151	.033
자영업 특성 및 경제적 특성	창업자본금		-6.3E-04	-.144**
	월평균순수입		2.739E-02	.116
	타소득유무(무)		7.842	.070
	부부동업여부(비동업)		18.671	.152**
	산업(기타산업)		-15.939	-.136*
	주관적 경제수준		3.472	.049
	내년경제전망		-5.820	-.089
	세력화 정도		9.357E-02	.001
	계약정도		-1.724	-.017
	자영업 발전가능성 만족도		-4.622	-.077
	자영업 수입 만족도		.198	.003
상수			25.929	
R ² (Adj-R ²)			.253(.206)	
F값			5.377***	

* p <.05 ** p <.01 *** p <.001

는 확률도 상대적으로 낮은 것으로 보고한 것과 같은 맥락으로 볼 수 있다. 즉, 남성이 여성에 비해 자영업으로부터의 전업이나 이탈이 적기 때문에 지속기간이 상대적으로 긴 것으로 해석된다. 자영업자의 연령이 많을수록 지속기간이 길었는데, 이는 연령이 많을수록 노동경력이 길어지기 때문에 나타나는 당연한 현상이나, 연령 증가에 따라 자영업이 안정성을 갖게 되는 한편 임금노동에 대한 취업기회가 없거나 비교우위를 가질 수 없게 되는 결과론적 현상으로도 볼 수 있다. 교육수준은 자영업의 지속기간에 부적 영향을 미쳐 교육수준이 낮은 자영업자일수록 지속기간이 긴 것으로 나타났다. 이같은 결과는 금재호 등(2003)의 연구에서도 자영업자의 학력이 높을수록 사업기간이 짧은 부적 효과를 보였던 것과 일치한다. 또한 현 자영업 이전에 다른 일을 한 경험이 없는 경우일수록 현재 자영업의 지속기간이 긴 것으로 나타남으로써 취업경험이 없는 경우에 다른 직종으로의 전업 및 이탈이 적고 지속성이 긴 것으로 볼 수 있다.

자영업 특성 중 창업자본금은 자영업 지속기간에 부적 영향을 미쳐 창업자본금이 적을수록 지속기간이 길었는데, 지속기간이 길수록 창업시기가 오래 전으로 당시의 물가수준이나 창업비용이 낮았기 때문에 나타난 현상으로 보인다. 한편 현 자영업에 부부가 동시에 참여하는 가족기업의 형태일 때 지속기간이 긴 것으로 나타나, 자영업의 근무시간이 임금근로직에 비해 길거나 일정치 않은 문제점을 부부 협력의 장점을 발휘해서 해결하고 자영업을 유지시키는 것으로 볼 수 있다. 산업별로는 자영업이 도소매업 및 숙박음식업에 속하는 경우 기타 산업에 속하는 경우에 비해 지속기간이 짧았는데, 이러한 결과는 도소매업 및 숙박음식업의 지속성이 짧은 것을 나타내주는 것이라고 하겠다. 이는 금재호 등(2003)

의 분석에서도 광공업을 기준으로 음식숙박업의 사업기간이 크게 짧은 것으로 나타나 음식숙박업중에서의 진입과 이탈이 매우 빈번하게 이루어지고 있는 것으로 해석한 것과 유사한 경향으로 볼 수 있다.

4. 자영업 지속의사의 영향요인

조사대상자들이 현재의 자영업을 앞으로도 지속할 의사가 있는가의 여부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분석한 결과는 <표 6>과 같다. 조사대상자의 개인적 특성, 가족특성, 자영업 특성 및 경제적 특성변수 중 개인적 특성은 지속의사에 영향을 미치지 않았으며 가족특성 중 부의 자영업경험, 자영업 특성 및 경제적 특성 중 타소득유무, 내년경제전망, 세력화정도, 자영업만족도가 유의한 변수였다.

부모 중 부가 자영업을 운영한 경험이 없을 때 조사대상자가 앞으로도 자영업을 계속할 의사를 가지고 있었는데, 근로자의 가족배경이 자영업을 선택하는 이유로 작용한다는 Fairlie(1999)의 결과와는 다소 차이를 보여 자영업의 선택요인과 지속요인은 달리 형성됨을 알 수 있다. 자영업소득 이외에 다른 소득이 있는 경우에 비해 없는 경우에 현 자영업을 지속할 의사가 있었다. 즉 자영업소득이 유일한 소득원이거나, 자영업을 지속하는 것이 다른 대안에 비해 더 금전적인 보상이 큰 경우로 볼 수 있다. 또한 내년의 경제적 상황을 긍정적으로 전망할수록 지속의사를 가지고 있었으며, 자영업의 세력화정도가 높을수록, 자영업만족도가 높을수록 현 자영업을 지속할 의사를 가지고 있었다. 이러한 결과는 Kim et al.(2002)의 연구에서 자영업의 장래성 만족도가 높고, 일 자체에 대한 만족도가 높을수록 자영업을 중단하고자 하는 의사가 낮았던 것과 유사한 경향을 보이는 것이다. 결과적으로

현 자영업을 지속할 의사를 가지고 있는 자영업자들은 전반적으로 자영업 운영에 대한 만족도가 높으며, 미래경제를 낙관적으로 전망하는 사람들이라고 볼 수 있다.

이상의 결괏값을 통해 자영업의 지속의사는 주로 자영업의 특성을 나타내는 요인이나 경제적 요인이 영향을 미쳤으며, 자영업자 개

인의 특성이나 가족특성을 나타내는 변수는 중요하게 작용하지 않는 것으로 볼 수 있다.

V. 결론 및 제언

본 연구는 자영업의 지속기간 및 지속의사의 영향요인을 분석함으로써 자영업 지속성의

<표 6> 자영업 지속의사의 영향 요인 (N=321)

변수	B	S.E.
개인적 특성		
성별(여)	-.016	.341
연령		
교육수준(고졸미만)		
고졸	.050	.581
전문대졸	-.153	.391
대졸이상	.279	.495
가족 특성		
결혼상태(사별, 이혼)		
가족수	-.519	.291
부 자영업경험(무)	-.794	.372*
모 자영업경험(무)	.008	.460
자영업 특성 및 경제적특성		
월평균순수입	.001	.001
타소득유무(무)	-.755	.379*
부부동업유무(비동업)	-.337	.368
산업(기타 산업)		
주관적 경제수준	.160	.236
내년 경제전망	.399	.202*
세력화정도	1.308	.349***
계약정도	.189	.318
자영업만족도	1.413	.332***
총자산	.008	.009
상수	-8.894	2.303
Log Likelihood	266.932	

* p <.05 *** p <.001

경향과 자영업을 지속하고자 하는 자영업자의 특성을 밝혀내는 것을 목적으로 하였다.

분석결과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현 자영업을 지속하고자 하는 의사를 가진 자영업자는 여성보다 남성인 경우가 많았고 중단하고자 하는 자영업자에 비해 교육수준이 높고, 자영업순수입이 많으며 가족 중 다른 소득원이 없는 경우였다. 한편 가계의 경제수준에 대한 주관적 인지수준과 내년의 경제전망이 보다 긍정적이었고, 자영업에 대한 세력화정도와 만족도가 높았으며 제약정도는 낮았다.

둘째, 자영업의 지속기간은 자영업자가 남성일 때 더 길었으며, 연령이 많을수록, 교육수준이 낮을수록, 이전 취업경험이 없을 때 더 긴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창업자본금이 적을수록, 부부동업으로 운영하는 경우, 도소매 및 숙박음식업을 제외한 기타 산업에 속할 때 지속기간이 더 길었다.

셋째, 현 자영업을 지속하고자 하는 자영업자는 아버지가 자영업을 운영한 경험이 없거나, 가족원 중 다른 소득원이 없는 자영업자이며, 내년 경제전망을 긍정적으로 볼수록, 자영업에 대한 세력화정도가 높을수록, 자영업 만족도가 높을수록 자영업을 지속하고자 하는 의사를 가지고 있었다.

이상의 분석결과를 통해 다음과 같은 결론을 제시할 수 있다. 전반적으로 자영업 지속기간과 지속의사의 영향요인은 서로 다른 양상을 보인다. 즉, 지속기간에는 주로 자영업자의 개인적 특성과 자영업 특성이 영향을 미친 반면 가족 특성은 영향을 미치지 않았다. 따라서 자영업을 선택하고 지속시켜 온 결정은 주로 개인적인 인적 자본과 일에 대한 태도에 의해 이루어진 것으로 볼 수 있다. 한편 지속의사의 결정요인은 주로 자영업 특성과 경제적인 요인으로서, 지속기간에 영향을 미쳤던 자영업자의 개인적 특성과는 독립적으로 지속

또는 중단의사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차이는 지속기간과 지속의사가 같은 연속선 상에 있는 것으로 보임에도 불구하고 실제적으로는 상당한 격차를 갖기 때문인 것으로 볼 수 있다. 즉, 지속기간은 자영업의 선택에서부터 시작하여 안정되는 과정과 관련된 측면인 반면, 지속의사는 미래의 자영업 전망여부와 다른 직업과의 비교를 평가한 이탈 및 전업의 측면에서 고려되기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또한 지속기간의 영향요인을 통해 나타난 자영업자의 현상은 우리나라 자영업자의 전형을 나타내는 것으로 보인다. 즉, 연령이 많고, 교육수준이 낮으며, 이전에 다른 취업경험이 없어 임금근로직에 대해 비교우위를 가질 수 없으므로 자영업을 지속할 수 밖에 없는 영세 자영업자로 볼 수 있다. 이러한 특성은 창업자본금과 가족기업형태, 산업에서도 나타나는데 소자본으로 창업한 영세자영업을 노동집약적인 가족기업의 형태로 운영하고 있는 것이나 지속기간이 짧아 진입과 이탈의 부침이 큰 도소매업 및 숙박음식업에 집중된 우리나라 자영업의 특성을 보여준다고 하겠다. 한편 자영업자의 연령이 많을수록 지속기간이 긴 현상은 두 가지로 해석할 수 있는데, 한편으로 연령 증가에 따라 사업의 안정성이 높아져 자영업을 지속하는 긍정적인 현상으로 볼 수 있는 반면 다른 한편으로는 고연령층이 현 자영업을 지속하는 것 이외에 다른 대안이나 임금근로자로서의 취업 기회를 갖기 못하기 때문에 나타나는 비자발적인 선택의 결과로 볼 수도 있다.

자영업 지속의사를 가진 자영업자를 중단의사를 가진 자영업자와 비교하였을 때 자영업 지속의사를 가진 자영업자는 자영업에 대한 비교우위를 가진 것으로 볼 수 있다. 즉, 다른 소득원이 없으나 자영업으로 인한 순수입이 보다 많으므로 자영업을 지속하고자 하

며, 따라서 이들에게는 자영업이 임금근로에 비해 비교우위를 가진다고 하겠다. 이러한 현상은 지속의사의 결정요인 분석 결과에서도 유사하게 나타나는데, 타소득원이 없는 자영업자에게서 자영업 지속의사가 있었다. 그밖에 자영업 지속의사는 세력화 정도와 자영업 만족도에 의해 결정되는 것으로 나타났는데, 이러한 결과는 자영업의 지속 결정이 금전적 보상 이외에 자영업의 자율성과 근무방식 및 근무시간의 융통성, 일 자체의 만족감 등 비금전적 보상에 의해 결정된다는 점을 반영해준다고 하겠다. 이와 같은 자영업의 장점은 지금까지 선행연구를 통해 알려진 바와 같이 자영업의 선택단계에서 영향을 미칠 뿐 아니라 자영업의 성장 및 퇴출 단계에서도 중요한 영향요인으로 작용함을 의미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또한 자영업 지속의사에는 주관적 경제수준 인지와 내년 경제전망 등 주관적인 경제인식변수가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남으로써 자영업소득이나 가계총소득 등 객관적인 경제수준 이외에 자영업자가 주관적으로 인지하는 경제적 상황이 중요한 역할을 하는 것을 알 수 있다.

한편 자영업자가 남성인 경우 자영업을 지속하고자 하는 경향을 보였으며, 지속기간이 여성에 비해 긴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남성이 가계유지와 생계책임자로서 더 큰 책임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볼 수 있는 한편 남성이 여성에 비해 자영업에 더 적합한 특성과 자질을 가지고 있는(김우영, 2001) 것으로도 볼 수 있다.

본 연구의 결과는 자영업을 운영하는 개인이나 가족의 자원배분 및 관리 측면에서 시사하는 바가 크다. 즉, 자영업자의 성별과 연령, 교육수준, 이전 취업경험 등의 개인적 특성이 자영업 지속기간에 영향을 미쳤던 결과를 통해 자영업을 안정 또는 성장시키기 위해서는

자신의 인적 자본의 강점과 취약성, 그리고 임금노동에 투입했을 때의 비교우위여부를 평가하여 자영업의 선택 및 지속여부를 고려해야 할 것이다. 또한 자영업이 여성에게 가사노동과 병행할 수 있는 이점을 줄 수 있다는 일반적인 관념과 달리 본 연구에서는 여성의 자영업 지속성이 남성에 비해 짧고 중단의사도 높게 나타난 현상은 여성자영업이 상대적으로 영세하거나 수익성이 낮으며, 진입이 쉬운 한편 경쟁과 부침이 심한 도소매업 및 음식업에 집중되기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취업대안으로 자영업을 고려하는 여성 개인에게는 자신의 인적 자본을 자영업에 투입시킬 때의 기회비용을 고려하여 자영업의 선택여부를 결정할 필요가 있다는 시사점을 준다. 또한 노동시장의 측면에서는 성에 따라 자영업의 수익성이나 지속성에 구조적인 차이가 존재한다는 점을 밝혀주며, 나아가 자영업이 기혼여성에게 유리한 취업대안이 아닐 수 있다는 가능성을 제기한다.

본 연구는 자영업의 지속성의 측면에서 지속기간 및 지속의사를 개별적으로 다루었으므로 지속기간 및 지속의사의 영향요인의 차이를 유발시키는 요인을 밝혀내지 못했다. 후속 연구에서는 지속기간 및 지속의사의 영향요인으로 개개인이 통제할 수 없는 경기 변동, 실업률 등의 사회경제적 요인을 포함시키는 한편, 각각의 영향요인이 구조적으로 상이할 수 있는 가능성을 반영하여 광범위하고 복합적인 틀 속에서 변수를 추출할 필요가 있다. 또한 자영업 지속의사가 세력화나 만족도에 의해 결정되는 결과는 자율성, 근무내용 및 시간의 융통성과 같은 자영업의 특성이 자영업을 지속하게 하는 긍정적인 요인으로 작용하나, 직업으로서의 자율성과 융통성을 더 필요로 하는 여성들은 오히려 남성에 비해 지속기간이 짧았다. 따라서 남성자영업자와 여성자영업자

의 자영업 지속성에 대한 다양한 분석을 통해 성별에 따른 차이를 규명할 필요가 있다.

【참 고 문 헌】

- 1) 강혜현, 여성과 조직리더쉽, 서울 : 학지사.
- 2) 금재호(2002), 여성 노동시장의 현상과제, 한국노동연구원 연구보고서
- 3) 금재호·조준모(2000), 자영업의 선택에 관한 이론 및 실증분석, 노동경제논총, 23(3), 81-107.
- 4) 금재호·류재우·전병유·최강식(2003), 자영업 노동시장의 현상과 과제, 한국노동연구원.
- 5) 김우영(2000), 취업형태의 비교우위와 자영업주의 결정요인에 대한 분석, 노동경제 논집, 23, 1-34.
- 6) 김우영(2001), 남녀간 자영업 비중의 격차 분석, 노동경제논집, 24(2), 1-34.
- 7) 김순미·김혜연(1998), 성인여성의 경제활동참가 및 노동이동의사의 상호관련성, 대한가정학회지, 36(1), 65-79.
- 8) 김순미·홍성희(2000), 가족기업의 가계 재정상태와 기업재정상태 분석, 대한가정학회지 38(7), 13-26.
- 9) 김지희(1998), 가족기업가정에 관한 연구-이론 및 실태를 중심으로, 이화여자대학교 박사학위 청구 논문.
- 10) 류재우·최호영(1999), 우리나라의 자영업 부문에 관한 연구, 노동경제논집, 22(1), 1-32.
- 11) 류재우·최호영(2000), 자영업을 중심으로 한 노동력의 유동, 노동경제논집, 23(1), 137-165.
- 12) 문유경·성지미·안주엽(2002), 여성 자영업자의 현황과 대책방안, 한국여성개발원.
- 13) 반포종합사회복지관, 사회복지척도집 2004, 서울 : 나눔의 집
- 14) 정순희(2002), 가족기업의 성공관련요인 분석, 한국가족자원경영학회지 6(1), 103-115.
- 15) 홍경아(2002), 가족기업의 성공에 미치는 영향요인에 관한 연구, 이화여자대학교 석사학위 청구논문.
- 16) 홍성희(2000), 가족기업연구를 위한 이론적 틀의 탐색, 대한가정학회지 38(9), 19-32.
- 17) Ahrentzen, S. B.(1990), Managing Conflict by Managing Boundaries: How Professional Homeworkers Cope with Multiple Roles at Home, Environment and Behavior, 22, 723-752.
- 18) Bates, T.(1990), Entrepreneur Human Capital Inputs and Small Business Longevity, Review of Economics and Statistics, 72.
- 19) Becker, G. S.(1975), Human Capital, Chicago: The university of Chicago Press.
- 20) Bielby, D.(1992), Commitment to Work and Family, Annual Review of Sociology, 18, 281-302.
- 21) Evans, D. S., Boyan J(1989)., An Estimated Model of Entrepreneurial Choice under Liquidity Constraints, Journal of Political Economy, 97,
- 22) Grasmuck, S., R. E.(2000), Market Success or Female Autonomy? Income, Ideology, and Empowerment among Micro-entrepreneurs in the Dominican Republic, Gender & Society, April, 231-255.
- 23) Heckman, J. J.(1974), Shadow Prices, Market Wages, and Labor Supply, Econometrica, 42, 679-694.
- 24) Kim, S. H., D. L. Sharpe, H. Y. Kim,

(2002), Factors Influencing the Likelihood of Leaving Self-Employment in Korea, Family and Consumer Science Research Journal, 30(4), 554-569.

25) Mincer, J.(1969), labor Force Participation of Married Women: A Study of Labor Supply, Aspects of Labor Economics, Princeton University Press.